

Grace

온예 2019. 12 vol. 203 / DECEMBER

강남중앙침례교회

Merry
Christmas



부족함은 사명의 원동력이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뉴스에 등장하는 훈훈한 소식들이 있다. 평생을 김밥을 말아서 팔던 할머니가 어느 대학교에 몇 억을 기부했다는 소식,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아서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식의 뉴스가 우리를 감동시킨다. 과연 이 할머니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내어 놓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당신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이다.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다. 부족함은 사명감의 원동력이 된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넉넉히 이해하는 넓은 품이 생기게 된다. 그려므로 부족함은 사명이 임태되는 인큐베이터이다.

- 말더듬이들의 반란

역사에는 기억될 탁월한 연설들이 있다. 여러 연설가가 있지만 가장 위대한 연설로 꼽는 연설은 1941년 영국의 메로우 고등학교의 졸업에서 했던 윈스턴 처칠의 연설일 것이다. 당시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독일군과 연합군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세계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고 처칠 수상은 졸업식 연설자로 초청을 받았다. 그것은 한 고등학교의 졸업식 연설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하는 젊은이들에게 향하는 아주 중요한 연설이었다.

단위에 올라선 처칠은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잠시의 침묵을 한 뒤 예의 그 진중한 목소리로 이렇게 입을 열었다. “젊은이들이여,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브이자를 만들어 보였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 짧은 연설로 인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불굴의 정신이 생겨 2차 세계 대전을 마무리 짓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연설의 내용이 아니라 연설을 한 윈스턴 처칠 수상이다. 역사 속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설을 했던 이 윈스턴 처칠은 어렸을 적에 극심한 말더듬이었다. 그는 말더듬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고 마침내 그것을 극복하였을 뿐 아니라, 탁월한 연설가가 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가 되었다. 부족함은 사명감을 키우는 인큐베이터이다. 그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노력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때문에 가장 두렵고 떨었던 사람은 모세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모세는 그 단점 때문에 아론이라고 하는 말 잘하는 동역자를 얻는 기회가 됐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신다.

나는 대학 다닐 때 운전면허 시험을 필기만 일곱 번을 떨어졌다. 처음엔 공부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붙는다고 해서 그냥 시험장에 갔다.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었다. 다음 번엔 꽤 열심히 준비했다. 그런데 또 불합격을 했다. 결국 일곱 번을 떨어지고 시골시험장이 쉽다는 말을 듣고 가서 본 시험에서 80점을 받고 합격하게 되었다. 그날의 감격은 20년이 넘도록 잊혀 지지 않는다.

그런 창피하고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 나에게 안겨준 유익은 무엇일까? 그 유익은 23년 무사고라는 것이다. 그 일곱 번을 공부하느라 그 누구보다 교통법규를 잘 알게 되었고 그 기간



최병락 담임목사

동안 누구보다도 실기연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안전운행은 누구도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말더듬의 부족함과 아픔이 탁월한 연설가의 밑거름이 되듯, 나의 연속적인 실패는 모범운전자로 나를 만들었던 것이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자기가 목양하는 성도들로부터 글에는 중하나 말에는 즐하다는 놀림을 받았다. 그랬던 그는 그 부족함 때문에 말에 더욱 신경을 쓰고 노력하였을 것이다. 마침내 사도행전 16장부터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넘쳐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더불어 그의 말의 핸디캡으로 글쓰기의 능력이 더욱 더 탁월해졌던 것을 보게 된다. 그의 말더듬의 부족함으로 글의 능력이 나타났고, 나중에는 말에도 능력이 나타났다. 부족함은 사명감을 키우는 인큐베이터가 분명하다.

- 가난해도 괜찮아

나는 1998년도 4월 결혼을 하고 5월에 아내와 함께 미국에 유학을 왔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미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노동허가증을 받아 공부와 함께 일을 병행해야만 했었다. 두, 세 가지 일을 하면서 공부를 병행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3~4일은 기본적으로 밤을 새워야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저 가난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하는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었고 가끔씩 신세 한탄만 할 뿐이었다. 그런데 대학원을 마치기도 전에 한 학기를 남겨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달拉斯 인근에서 미국교회 건물을 빌려 쓰면서 주일 오후에만 예배를 드리는 15명의 성도와 교회를 맡기셨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설교를 통해 우리 성도들로부터 듣는 가장 많은 피드백은 다음과 같다.

“목사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셔요. 목사님은 우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의 아픔을 아셔요.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도 구체적이어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금세 깨닫게 돼요.”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내가 직접 그들처럼 살아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민과 갈등, 힘든 점이 무엇인지 모두 알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겪은 모든 경험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사용하셨던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매료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히4:15)”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부족함을 친히 채워주시는 것이다. 이 진리를 깨우쳤다면 이제 이렇게 외쳐도 될 것이다. 가난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 요셉 이야기

부족함이 사명의 밑거름으로 사용된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다. 요셉만큼 불행한 인생이 또 있을까. 그는 인생 전체가 부족함의 연속이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없었다. 자라면서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 철이 들 무렵에는 형제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노예로 팔려가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자유가 부족한 노예로 살았다. 보디발의 신의를 얻고 가정의 총무까지 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죄수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성실함으로 감옥의 제반사무를 맡는 책임자가 된다. 그곳에서 술맡은 관원장과 떡맡은 관원장을 만난다. 나중에 술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는듯 하다. 요셉은 그로부터 평생 감옥에서 부족함 투성이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이 모든 부족함의 경험들을 사용하기로 결심을 하셨다. 그리고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앞으로 애굽에서 일어나게 될 흉년과 풍년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셨고, 요셉을 통해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결국 총리대신이라고 하는 범인이 받을 수 없는 직책을 받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이다. 아무리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하는 해몽가라고 할지라도 애굽이라고 하는 대국을 경영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요셉에게 그 직책이 맡겨졌다. 과연 어떻게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요셉의 부족한 시절의 경험을 사용하셨다. 요셉은 이미 총리대신이 되기 전에 총리대신의 수업을 알뜰하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선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국방부의 모든 시스템과 경영방법을 배웠고, 감옥에 있어서는 당시 애굽의 내무부 장관에게 해당하는 떡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애굽 안의 살림에 대해서 배웠으며, 외무부장관에 해당하는 술맡은 장관을 통해서 애굽이 상대하는 이웃나라들과의 외교에 대해서 치밀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이다.

부족함의 상태는 하나님께 최고의 과외수업을 받는 시간이다. 절대로 신세나 한탄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다. 그곳에서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요셉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훈련이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비싼 값을 지불하고 시키시는 과외수업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

주인공 배우가 대본에서 외우기 어려운 대사를 임의로 빼버리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색을 한다면 주인공이 바뀌든지 드라마가 출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쓰고 계시는 요셉같은 드라마에 주인공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그 드라마를 각색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빼먹지 않고 성실히 임한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절대로 요셉 한 사람의 영웅담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것임을 믿는다.

2019년도 12월 전교인 특별새벽기도

+ 강중침 전교인 특새

나의 땅끝, 바로 당신

“한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2020년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

2019년 12월 2~7일(월~토) 새벽 5:00
강남중앙침례교회 은혜채플(본당)



장경철 교수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박창환 목사
(꿈꾸는교회)



최병락 담임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임우현 목사
(온세대 연합강사/번개탄 저자)



2019년도 12월 전교인 특별새벽기도(이하 특새)가 12월2일(월)부터 7일(토)까지 6일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특새는 2020 사역 비전인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위해서 전교인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땅끝, 바로 당신”이라는 주제로 장경철 교수님(서울여대 기독교학과), 박창환 목사님(분당 꿈꾸는교회), 임우현 목사님(온세대연합강사)과 최병락 담임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특별히 이번 특새는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 사항〉

- ① 특새기간이 10일 → 6일(월 – 토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 ② 찬양시작시간이 5시15분 → 5시로 변경되었습니다.
- ③ 말씀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매일 강사님들의 본문 말씀 카드를 제작하여 나눠드립니다.
- ④ 6일(전일)을 참석하여 말씀카드를 모두 모아오신 분들에게는 교회 사역비전이 담긴 WORLD의 마그네틱 선물 중 O(OIKOS) 기념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 특새기간 여전도회의 준비로 아침식사가 제공됩니다.

	12. 2(월)	12. 3(화)	12. 4(수)	12. 5(목)	12. 6(금)	12. 7(토)
설교	장경철 교수	담임목사		박창환 목사	임우현 목사	
경배와찬양	멜기세덱		UpDream	헤세드	증·고등처 연합찬양단	
특송	교역자 가정	운영협의회 부부 원로장로 부부	예비 목자1	예비 목자2	대학/청년	차세대
안내	7·18·19 남전도회	8·17 남전도회	9·16 남전도회	10·15 남전도회	11·14 남전도회	12·13 남전도회
헌금	11 여전도회	22 여전도회	33 여전도회	41 여전도회	52 여전도회	61 여전도회
본당안내	12·13 여전도회	2·23 여전도회	31·32 여전도회	42·43 여전도회	51·53 여전도회	62·63 여전도회
친교실봉사	71·72 여전도회	73·81 여전도회	82·83 여전도회	91·92 여전도회	93·101 여전도회	102·103 여전도회

※ 안내 및 헌금봉사자는 4시40분까지, 친교실봉사는 6시 1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 W(예배곡), 이윤섭 목사|

+ 2019 강중침
전교인 특새

말씀카드

셋째날
12/4(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털모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 시편 133장 1-3절 -

R

※ 전일 참석자 선물(12월 2일~7일): 말씀 카드를 모두 모으신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2019 강중침
전교인 특새

말씀카드

다섯째날
12/6(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 요한복음 13장 34-35절 -

D

※ 전일 참석자 선물(12월 2일~7일): 말씀 카드를 모두 모으신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강남복지재단에 기부금 전달

하나님께 대한 감사

지난 7월 7일 맥추절에 시작된 153 감사대행진이 11월 24일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 대행진의 목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성도 간의 감사를 나누고 이웃에 대한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천을 위해 감사노트, 감사저금통, 감사편지 등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기회들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감사의 기회들의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원주된 153 감사노트들



감사노트 기념품 '모나미 153 리미티드 에디션'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기억하기 위한 감사노트입니다. 감사노트에는 매일 5가지의 감사를 적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적어 매일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감사대행진을 마친 11월 17일까지 총 271명의 성도가 감사노트의 완주에 성공하여 16만 개가 넘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특히 이 감사노트 대장정을 모두 완주한 성도들에게는 모나미에서 출시된 '153 블펜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 블펜은 모나미를 운영하시는 우리교회 성도(송하윤, 임수영 성도)가 후원해주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감사노트의 여정은 끝났지만 감사의 여운이 가시지 않아 또 다시 자기만의 감사노트를 구입하여 매일의 감사를 이어서 적고 계신다는 성도들의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간의 감사를 기억하기 위한 감사편지는 총 1,270 통이 배달되었으며 감사편지를 통해 감사가 감사를 낳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우 빼곡하게 가득한 빨간 감사우체통 속에는 평소 간직하고 있던 감사의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감사편지들은 안내데스크와 선교헌금함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감사편지를 통해 가장 많은 감사를 전달한 이정수 장로는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편지를 나누고 싶었다. 부족한 봇글씨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쓰일 수 있어 그 또한 감사하다.”라고 말하며 감사편지에 성경말씀을 캘리그레피로 적어서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더 했습니다.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이웃 간의 감사를 위한 감사저금통은 327개, 총 금액 2,600만원이 모금되었고 매주 감사저금통을 내주시거나 현금봉투에 ‘153감사저금통’이라고 적어서 내주시는 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금된 금액을 통해 강남구의 위기가정 케어, 다음세대 세움, 저소득 가구들을 돋는 강남복지재단에 2천만 원을 기부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도움이 필요한 강남구에 살고 있는 이웃을 위해 교회 구제사역을 담당하는 부서와 연합하여 기부할 예정입니다.



감사물품 박스



기념물품과 감사노트를 받는 성도들



경찰관을 위한 편지



소방관을 위한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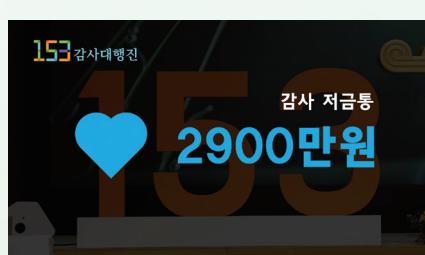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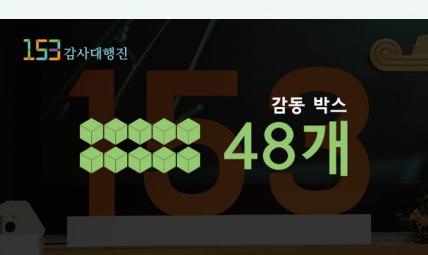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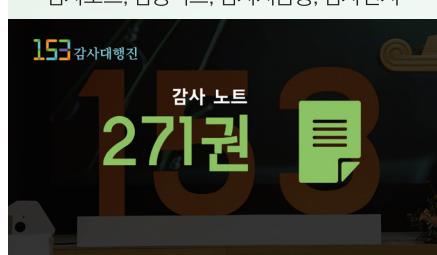
감사노트, 감동박스, 감사저금통, 감사편지

이와 더불어 남전도회(18개)와 여전도회(33개)에서 준비해주신 감동박스 48개는 우리교회가 위치한 논현 2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교회를 알리고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다가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남을 위해서 헌신하시며 수고하시는 경찰관, 소방관, 환경미화원분들을 위해 많은 성도님들께서 적어주신 릴레이 감사편지를 전달하여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153 감사대행진을 통해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매일의 감사가 습관이 되어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우리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대행진을 통해 역사하신 그리고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강윤호 전도사 |





추수감사절 감사콘서트

“내 속에 많은 하늘이 있고 그 하늘마다 가득한 당신~” 바이브레이션이 가득한 트로트가 흘러나오는 이곳은 공연장이 아닙니다. 이 흥겨운 트로트가 흘러나오는 곳은 성도가 가득한 강남중앙침례교회의 본당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바로 강남중앙침례교회의 목사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당에서 트로트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성도님들은 그 트로트를 들으며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특별출연(최병락 담임목사)



쓰임찬양대



왼쪽부터 이연정, 정소연, 이민경



왼쪽부터 임성규, 이한나

2019년 9월 1일부터 출판위원회(이하 출판위)에서 개최한 제1회 강중침 백일장 '쓰임'의 원고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의 이야 기들을 적은 원고는 3주간의 접수기간을 거쳐 모집되었습니다. 이 모집기간이 끝난 뒤에 음악위원회(이하 음악위)에서는 유명한 작곡가들을 모셔 백일장에 출품된 원고들을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심사를 거친 네개의 원고들은 작곡가들의 손에 이끌려 아름다운 선율들이 입혀졌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의 옷을 입은 원고들은 하나의 찬송가로 탄생하였고 11월 22일 열린 금요성령집회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찬송가의 이름은 '다만 사랑하심'(작사: 정은주, 작곡: 흥지승), '못난이 씨앗'(작사: 최영수, 작곡: 김영훈), '사마리아 여인의 기도'(작사: 김영숙, 작곡: 손경민), '시온의 왕께 감사하라'(작사: 김상진, 작곡: 유범석)입니다. 이 네 곡의 분위기와 특징을 살려 솔로곡에는 임성규(feat.이한나), 여성중창단에는 정소연, 이연정, 이민경, 남성중창으로는 권규택, 이근도, 김영광, 김요한, 강윤호, 박종진, 최병락, 마지막 합창으로는 쓰임찬양대가 찬송을 함으로써 산파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날 곡으로 쓰임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의 기도'의 작사가 김영숙 권사는 "이 곡이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몰랐다. 원고를 제출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아직 내질 않았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출했다. 원고 제출 후에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안되겠거니 하고 있었다.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뜻밖에 내 시가 곡으로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어 너무나 기뻤고 특히나



설교하는 최병락 담임목사



시상식

오늘 담임목사님이 곡에 출연해주셔서 가문의 영광이다.”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최병락 담임목사님은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한명의 문동병자에 대해 설교하면서 “열명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아홉명은 그냥 돌아갔을까. 우리는 아홉명의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강중침 백일장 '쓰임'의 시상식이 콘서트 중간에 거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증(김문자, 최도윤), 시(김선율, 홍광표), 기도문(강대립, 이덕영), 그림일기(이동현, 김하은), 차세대교육국시, 간증(김진의, 김태수), 감사상(김한아) 부문으로 나뉘어 시상받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기쁨은 비단 작사와 작곡가, 시상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성도님들의 얼굴에도 한 가득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감사콘서트에 참석한 국미화 집사님은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곡으로 탄생하는 것이 참신했다. 준비가 잘 된 콘서트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했다.” 라며 이번 콘서트에 대한 자신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감사콘서트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해마다 백일장과 감사콘서트를 통해서 성도의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매년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찬양으로, 문서 선교로, 간증으로 쓰임 받습니다. Write Your Story!

| 이길호 전도사 |

김영숙 권사



정은주 집사



최영수 집사



김상진 성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 뜨겁게



**우리,
함께,
선교**

2019년 제17회 전교인 선교축제

2019.11.26화 – 12.1주일

- 이금주 선교사 초청예배/ 11.27수 10:00, 19:30
- 전교인 선교헌신예배 금요성령집회/ 11.29금 20:30
- 전교인 선교헌금 작정/ 12.1주일 1부~4부 예배
- 선교사를 위한 성탄 위문품 접수/ 12.1주일 마당
- 선교부스 운영 및 따뜻한 음식 나눔/ 12.1주일 마당
- 김창옥 교수, 주리 CCM가수 초청예배/ 12.1주일 5부 예배

강남중앙침례교회
Kangnam Irving English Church

로 나누어집니다. 올해는 특별히 대학처의 난타공연도 이 자리에서 펼쳐질 진다고 합니다. 설치된 부스에서 이미용선교팀(팀장 오은숙), 의료선교상담(신재균, 정운봉), 법률상담(양심지) 모두 접수를 받고 본당 소예배실, 의료선교실, 유치원에서 각각 봉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부~4부 예배에서는 전교인 선교 현금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교회에서는 <Operation 2000>과 <200&200>을 선교 목표로 삼아 전교인의 참여를 독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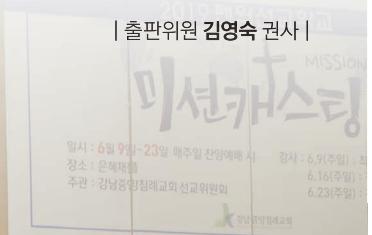


하며 부족한 재원은 교회의 후원으로 선교 예산을 충당해 왔습니다. 국내 교회 및 기관 200개, 해외 교회 200개의 교회를 돋자는 의미로 발행된 200&200의 목표는 2019년 현재 <126&171>의 결과를 기록하고 성장해왔으며 <Operation2000>은 <Operation1164>를 통하여 449,460,000원의 선교현금이 작정되었고 11월 셋째 주 현재 95.5%의 모금 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처음 선교현금 작정이 시작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작정액은 4억이 평균이었고 2014년과 2015년에 5억을 넘은 것을 제외하면 우리의 선교비 작정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더욱더 선교 열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2019년 여름 대학 청년의 선교활동과 담임 목사님의 차세대를 통한 선교의 비전(4/14 : 4세~14세의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 앞으로 강중침의 선교 가운데 주요할 것 같습니다. 최병락 담임목사는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 오히려 4/14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복음의 불모지이다. 이들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지난 펜워크선교학교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선교지의 청소년들을 위한 후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선교축제 중 12월 1일의 5부 심풀예배에서는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15분)의 열정 강사인 김창옥 교수와 CCM 가수 주리를 초청하고 담임 목사님의 간결하고도 성령의 능력 있는 메시지를 더하여 비신자들도 부담 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선교 예배를 준비하여 해외의 선교뿐만 아니라 이웃 선교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차세대이고 교회의 미래는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길 기대합니다.

| 출판위원 김영숙 권사 |



2019년 전교인 선교축제가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진행됩니다. 27일에는 이

금주 선교사를 초청하여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선교 현장의 뜨겁고 치열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26일 화요일부터는 교회 본당과 멀티교육문화센터 로비에 선교 관련 사진 전시가 열릴 예정이고 28일 금요성령집회에서는 선교위원회의 <선교보고의 밤>을 발화점으로 삼아 전교인 선교의 불을 지필 <전교인 선교헌신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콘서트로 감사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금요성령집회가 이번에는 선교 헌신의 마음으로 더욱 뜨겁게 달구어질 것입니다.

12월 1일 주일 아침에는 교회 앞마당에 선교 부스를 설치하고 선교사를 위한 성탄 위문품 접수를 받습니다. 동시에 해마다 인기를 끌어왔던 호떡과 떡볶이, 꿀떡 등이 따뜻하게 무료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불들며
땅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임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불드리라
(이사야 41:9-10)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를
붙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 죄 많은 저를 위하여 모든

걸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얼마 전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기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새로이 성전을 찾아와 새신자가 되고 사랑받고 나
누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참 감사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 때 장로님들께서 준비해주신 식사와 다과로 과
분한 대접도 받고, 여흥으로 신나게 웃고 즐거웠던 잔칫날, 목
사님의 감동적인 간증까지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천하
보다 귀한 생명이 돌아오길 바라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렇게
좋은 교회와 귀하신 목사님께로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받
은 기쁨, 감동, 사랑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예수님 향기 나는 여종이 되리라 다짐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안 미친 곳이 없고 매순간 작은 신음소
리도 듣고 계신 신실하신 주님, 실족하지 않게 제가 가는 길목
빛을 비춰주신 아버지, 교회를 다니면서 미지근해진 마음에 또
겁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바라고 기도했던 것을 들어주신 주님,
연이은 사업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함께하신 주님
을 그리워했던 시간들을 지나, 어느새 미지근해진 저를 봅니다. 꽉 막혀버린 답답함으로 무엇인가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같
망하던 무렵, 오랜 지인들과 노인숙 권사님으로부터 강남중앙
침례교회로 인도받고 뜨거운 금요성령집회에서 눈물과 기도로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역자 분들도 세심하게

매 순간 함께 동행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덕분
에 평안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체계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교제와 나눔, 따
뜻한 미소와 활기 넘치는
성도분들,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의 은혜 넘치는 말씀

선포에 힘 얻고, 뭐 하나 버
릴 것이 없는 꽉 채워지는 낙낙함을 느끼며 교회 오는 것이 기
쁜 날입니다. 제가 받은 사랑, 저도 세상에 전하며 단단해지
고 견고한 믿음을 쌓아 나가며 전도와 봉사에 힘쓰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이은주 성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우리의 위로도 말미암아
넘치리도다
(고린도후서1:5)

| 이은주 성도 |

기적, 우리 부부는 손잡고 교회 갑니다~

저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깡통신자였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지나가는 말
로 “강중침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는 콧방귀를 뀌며 잠깐 다니
다 말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쯤 되었을 무렵, 교회 다니는
모습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결혼생활 19년. 남편은
그 누구에게도, 종교에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
년의 나이에 접어든 남편이 갠년기인가? 왜 저러지?’ 하고 의심
스러워하며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 너무나 힘겹게 운
영해 가는 것을 알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희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남편이 뭐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

에 가서 주님 붙잡았구나!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구나, 힘

들었구나! 남편아……’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한 회사의 리더

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감 앞에 무너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울며 보내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

리 교회 올래?” 하고 말입니다. 제 눈에는 살짝 어이없어 보이

기도 했고, 새 신자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의아했습니다.

저는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

거든요.

‘차라리 내가 다니는 교회를 다니지, 왜 굳이?’ 남편이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조차 믿겨지지도 않았지만, 혹여나 맘 변

해서 깡통신자처럼 교회에 안 다닐까 봐, 혹시 모르니 더 단단
히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그 믿음마저 놓칠까 싶어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곤 물어봤습니다.
“왜,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왜 좋아? 우리 교회 다니지?”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숨이 막힐 것처럼 너무 힘든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 주고, 나를 위로
해 줘. 최병락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
데 유명하시대. 당신도 와서 한번 들어 봐.”

깡통신자 남편이 자기 교회 와 보라 하니 저는 참 그저 놀랍기

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참 어색했습니다. 주말에
남편과 나란히 교회를 향해 가는데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도

나란히 부부가 교회에 갈 수 있는 날도 있구나! 인물이 훨하신
최병락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음, 남편이 왜 좋아하는
지 알겠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예배당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

니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교회 다니는 게 늘 기도 제목
이었는데 말입니다. 할렐루야!

남편에게 “나 새가족으로 등록해 줘. 부부가 같이 예배 오면 하
나님이 우리 부부를 기억해 주실 거야!” 하며 깡통신자인 남편

이 저를 전도한 강중침에 새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남편이 오
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아내인 내가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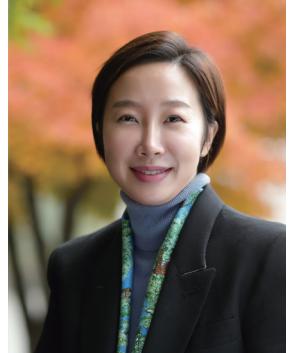
면, 기도의 힘은 점점 커질 거라 믿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기도
했습니다.

요 몇 개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도 회복되었고 남편과 은혜로운 시간을 서로 나눠 갖게 되

었고 저에게는 아니 우리
부부에게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부부도 주님 바라보
기를 할 수 있구나! 우리 부
부도 손잡고 예배에 갈 수
있구나! 우리 부부도 서로
기도할 수 있구나! 은혜로
운 대화도 서로 나눌 수 있
구나!”

우리 가정의 고난 가운데 가슴 아픔의 눈물이 아닌 은혜가 넘치
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눈물로 세수를 합니다. 남편
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버
텨 나갈 수 있었을까? 금요성령집회, 주일예배가 나에게 생활화
가 될 줄이야!”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또 저는 가슴 벅차게 눈
물을 세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저희 부부가 어려
운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버티는가 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최지현 집사

| 최지현 집사 |





제2회 성경암송대회



2019년 11월 17일 오전 10시에 멀티문화교육센터 401호에서 차세대교육국의 가장 큰 행사인 '제2회 성경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유, 초, 중, 고 각각의 부서에서 예선을 치르고 올라온 총 11명의 학생들이 (유아처 3명, 초등처 4명, 중, 고등처 각각 2명) 치르는 본선의 무대의 '아름다운 경쟁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2회 성경암송대회'는 2018년 11월에 치러진 '성경암송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대회입니다. 작년에 비해 더욱 치열한 예선전이 각 부서에서 치러졌습니다. 이 예선에 통과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드려서 말씀을 읽고, 외우고, 그 의미를 배웠습니다. 예선을 통해 11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었습니다. 선발된 11명의 학생들은 인터뷰와 리허설을 거쳐 본선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초등처 '예소리' 찬양단의 찬양으로 포문을 연 본선은 차세대교육국 학생과 교사 350여명이 참석하였고 차세대교육국 총괄 목사 김영광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암송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웠습니다. 또한 초, 중, 고 연합 찬양대가 부른 '나의 사랑하는 책'은 암송대회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이번 암송대회에는 양민 장로, 국태환 장로, 홍성서 집사, 김영광 목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정확성(생략이나 오발음), 표현력(바른자세, 바른시선, 목소리 크기), 전달력(흐름지체, 단어 힌트), 속도(시간초과)의 네 가지 영역을 평



설교하는 김영광 목사



우승자 정시온

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본선에 참가한 11명은 (유아처 '강승윤, 이로은, 정시온', 초등처 '김재민, 김주원, 박상휘, 엄하민', 중등처 '김유진, 이율', 고등처 '김태수, 김혜인') 각각의 선별된 말씀을 단 위에 서서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암송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경쟁이 아닌 즐거움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승패를 떠난 아름다운 암송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또한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매년 암송 대회의 업그레이드되는 무대 꾸밈과 장식들입니다. 계단부터 이어지는 말씀 구절들과 화려하게 반짝이는 'I♥bible' 라고 적혀있는 전등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냈고 성경암송대회의 격을 높여주었습니다. 이 감탄의 결과물들은 유아처 '데코팀'이 꼬박 하루를 온전히 사용하여 완성되었기에 더욱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동과 아름다움이 공존한 2019년 제2회 암송대회는 1등-정시온 (유아처), 2등-강승윤(유아처), 김재민(초등처), 3등-이로은(유아처), 김주원(초등처), 김혜인(고등처), 장려상-박상휘(초등처), 엄하민(초등처), 이율(중등처), 김유진(중등처), 김태수(고등처)로 끝을 맺었습니다. 순위는 정해졌지만 모두 암송대회를 위해 힘썼기에 모두가 우승자이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힘쓴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찬양하는 연합성가대

심사위원 왼쪽부터(양민 장로, 국태환 장로, 홍성서 집사, 김영광 목사)

시상식



제2회 성경암송대회 behind story 비하인드 스토리

제2회 성경암송대회가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암송대회는 끝이 났지만 대회 안에서 담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은 남아있습니다. 대회에서 다 보여주지 못했던 두 명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제2회 성경암송대회의 우승자 '정시온'양과 고3 임에도 성경암송대회를 참석한 '김태수'군의 이야기입니다.

정시온's story (정시온의 어머니 김현희 성도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왼쪽부터 정시온 양, 김현희 성도

Q. 시온이가 이번 성경 암송대회 어떻게 준비하게 되었나요?

A. 시온이가 이번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를 할 때 “시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엄마, 아빠가 너무 기쁠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고맙게도 시온이가 저희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이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죠. 시온이는 매일 1시간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있는데 이 시간에 말씀을 읽고 외웠어요. 또 하루에 두절씩 말씀을 외웠는데 오늘 1,2절을 외우면 내일은 1~4절을 외우는 방식으로 외웠어요. 그러다보니 어느새 말씀을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Q. 시온이가 이번 성경대회 우승한 것에 대한 소감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A. “그냥 좋아.”라고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사실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해요. 특히 시온이를 봐주시는 유아처 선생님들이 시온이를 볼 때마다 칭찬을 해주시니깐 “좋아.” 한 마디만 하지만 마음 속으론 기뻐하는 것 같아요.

Q.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A. 사실 시온이는 너무 잘 외워서 걱정이 안 되었어요. 오히려 오빠인 호영이가 말씀 외우는 것이 동생보다 더더어서 걱정했어요. 호영이는 이번에 안타깝게 예선에서 떨어졌어요. 하지만 호영이가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외우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어서 그 가운데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또 두 남매가 방에 들어가서 같은 시간에 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모습들이 저에겐 너무나 은혜였어요. 지난해에는 저희 가정이 새신자라 참가할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참가하고 보니 꼭 계속해서 참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어요.

김태수's story

Q. 고3이라는 압박감이 심했을 텐데 어떻게 암송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나요?

A. 저는 오히려 고3이기 때문에 암송대회에 참석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으면 주님을 떠나서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인생의 중요성에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말씀을 떠나서 살면 그 삶이 보잘 것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없이 살다면 늘 다른 누군가와 저를 비교하게 되고 안 좋은 습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힘든 이 시간에 말씀을 불들려고 노력했고 암송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Q. 시간이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암송했나요?

A. 저는 10시까지 야자하고 집에 도착해서 20분 정도 암송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암송대회 광고가 나간 뒤 일주일 뒤부터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전에 말씀을 한 구절 다 외우고 그걸 쓸 수 있게 되면 써서 작은 메모지에 들고 다니면서 단어장처럼 외웠어요. 그러다보니 조금씩 외워지더라고요.

Q. 말씀 암송이 수험생의 삶에 도움이 되었나요?

A. 저에게는 꼭 마지막에 가면 포기를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항상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가면 마음이 흔들렸죠. 이번 암송대회가 수능과 겹쳐있었는데 저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지막 마음을 다졌어요. 누군가는 20분의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저는 20분의 시간에 암송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수험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노력했기에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Q. 마지막 암송대회를 치루었는데 다음 번 암송대회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A. 고등처 친구들이! 바쁜 것 알아! 하지만 그 바쁨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는게 학창시절을 보내는 너희에게 큰 힘이 될거야. 한번 도전해보자!



김태수 군

다음 번 암송 대회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는 6살 시온이와 암송하는 자녀들을 보며 은혜였다고 말하는 김현희 성도. 그리고 고3 수험생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드는 것이 큰 힘이었다는 김태수 학생의 은혜가 울림이 되어 전해집니다. 이 울림이 차세대교육국 전체로 퍼져나가길 기대합니다.



부산에서 온 선교편지

할렐루야!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 교회와 귀 선교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2019년 예배 시작 전마다 주먹을 쥐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자!"라는 표어를 크게 외치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어, 내년에는 임대교회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작으나마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된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강남중앙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부활 주일 이후 저희 교회는 5월 동안 매 주일 각 선교회별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결속하며 충성하였고, 9월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함께 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경골든벨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11월 첫 주는 추수감사주일과 창립 7주년 기념주일, 그리고 이웃초청잔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더 큰 일들로 함께해주시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그 감

사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하심이 더해져서 입당하는 날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부족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이루어지는 일이라 원수가 틈 타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 또 기도하여 주십시오. 저희 역시 베풀어주신 후원과 기도에 기도로 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장하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평안을 빕니다.



성경 골든벨

2019년 11월 16일

부산 섬기는침례교회 오주호 목사 드림



추수감사절



필리핀 국립교도소 선교소식

우즈베키스탄을 하나님께!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님, 선교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온 성도님들에게 필리핀에서 이상배 선교사가 주안에서 문안을 드립니다. 저희도 강중침 선교위의 든든한 기도와 성원의 덕택으로 건강하게 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필리핀 국립교도소는 격변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몇 년 전에 모범수 감형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죄수가 공부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종교나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등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할 경우에 복역 기간을 추가로 산정해 주는 것은 이미 되어 오고 있으나, 이 새로운 법은 그 혜택을 아주 관대하게 확대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 많은 재소자가 최근에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법률의 집행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말아야 할 재소자들이 혜택을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교정본부장이 결국 해임되고 수십 명의 교도관들이 정직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초강경노선의 새로운 본부장이 부임하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본부장이 첫 번째로 한 일은 교도소 안의 개인 오두막집을 모두 철거하는 일이었습니다. 필리핀의 교도소

는 개인이 점유권을 가질 수 있는 작은 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개인 오두막집들을 모두 밀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엄격한 규율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필리핀 대통령은 석방되었던 재소자 1,900여 명에 대해 2주 내로 모두 복귀하도록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 중 우리 선교회 소속의 신학교 졸업생들과 선교회의 세 교회에서 봉사하던 재소자들 중에서 새로운 법의 혜택으로 석방되었던 재소자 목사나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한때 범죄자였지만 교도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아직은 재소자 신분이 아니므로 저희 미니멈 교회 근처에 있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이들이 주일에 특별 허가를 받아 우리 미니멈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격동기에 처한 교도소의 인적 물적 변화가 저희 선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맥시멈과 미디엄의 교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원격조정으로 재소자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예배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부득불 휴강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다행히 11월부터는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1월과 12월의 출입허가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담임 목사님, 선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그동안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저희 선교회를 위해 선교비를 보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것을 인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교회의 부흥에 직접적으로 공헌이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복음전도를 향한 주님의 명령과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성경적인 정신에 충실히하기 위해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강남중앙교회와 선교위원회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다시 뵙 때까지 온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9년 10월

필리핀 교도소에서 이상배 선교사 드림



역대하 18장과 19장은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실수와 개혁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경건하고 부요와 영광이 극에 달한 왕이었다. 그는 북쪽의 왕 아합 4년에 왕으로 즉위하여 악한 이웃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본 왕이었다.

I. 역대하 18장은 여호사밧이 빠진 수령에 관한 이야기이다.

여호사밧왕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자 두 가지 큰 실수를 하여 수령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는, 여호사밧왕의 아들인 “여호람”을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것이다. 이 결혼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결혼이었고 결국 아달랴가 다윗왕가를 끊어버리려는 큰 비극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여호사밧왕이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왕과 소위 정상회담을 한 것이다. 아합왕이 초청해서 간 것도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간 것이었다. 여호사밧왕과 그 종자들은 아합왕으로부터 우양을 대접받았다.

아합왕은 자기 딸도 여호사밧에게 주고, 찾아온 여호사밧을 잘 대접하여 동맹관계를 맺은 후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 요단강 동편 땅 길르앗 라못을 아람군대로부터 함께 전쟁을 해서 빼앗아 오자는 제안이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솔로 흥이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대답하였다.

먼저 아합에게 함께 싸우겠다고 허락한 여호사밧은 뒤늦게 아람과의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자 제안을 하였다. 여호사밧왕은 웬지 불안한 마음의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합왕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 400인을 모으고 물어보았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려, 말랴?” 400인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즉시 대답하였다. 선지자 400인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이유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서 일제히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경건한 여호사밧왕은 이 대답이 의심스럽고 불안함을 느꼈다. 그러므로 아합에게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아합왕은 즉시 이를라의 아들 “미가야”를 추천하였다. 400명의 금송아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할 때 “미가야” 한 사람만이 진실을 예언하였다, 고난이 올 것을 알고도 예언한 것이다. 미가야의 말은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흘러

질 것이고, 양은 주인이 없으니 각각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백성들은 죽지 않아도 아합왕은 죽게 되리라는 상징적인 예언이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변장한 아합은 아람군사가 우연히 쓴 화살에 맞아 죽고, 왕복을 입고 싸우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백성들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II. 역대하 19장은 여호사밧왕이 개혁에 관한 내용이다.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쓸데없는 전쟁에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히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여호사밧은 두 가지를 개혁하였다. 하나는 신앙의 개혁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제도의 개혁이다.

신앙의 개혁이란, 브엘세바(남쪽)으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유다 전역을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 일이다.

또한 사법제도를 개혁하여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예루살렘에 중앙법원을 설치하고, 온 나라의 견고한 성마다 지방법원을 설치하였다.

결론

가장 경건한 왕 여호사밧도 완전한 사람수는 없다. 어리석음으로 인해 수령에 빠졌으나 경건함을 보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어리석음보다 경건함이 이기는 인생이 되자.

Good to Great 좋은 교사에서 탁월한 교사로

올해 교사 대학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강의가 2019년 11월 3일 오후 1시 30분 멀티 교육문화센터 401호에서 열렸다. 입후의 여지가 없이 많은 교사, 교역자, 시무/원로 장로, 성도들 300여 명이 401호를 가득 메웠다. 여느 다른 강의



이수복 사모

와 비교해도 많은 참석자가 기다린 강사는 바로 이수복 사모. 이수복 사모는 먼저 지난 세미한 교회에서 차세대 교육국 디렉터로 섭겼던 것에 대한 감사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세미한 교회에서 교육과 동시에 선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면서 선교에는 ‘수평적 선교(밖으로 향해 나가는 지역 선교)’와 ‘수직적 선교(자녀와 교회에 보내주신 아이들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자녀 되게 하는 것)’가 있으며, “교사 여러분은 교육과 선교를 동시에 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고 계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Good to Great’이라는 제목으로 ‘차세대 교육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지난 세미한 교회에서의 사역을 모델로 하여 설명하였다. “세미한 교회에서 이룬 일들은 기독교 교리에 입각해서 만들었으므로 어느 교회에서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면서 “장자교회인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차세대 교육국도 앞으로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삼대 목사님을 모신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점검하여 업그레이드된 교육국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라고 하였다. “그러기에 교사를 바라보는 수준도 높다”면서 “교사를 세울 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신앙의 컬러가 한쪽으로 치우친 교사는 세우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러분의 믿음, 그 영적 상태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흘러간다. 그 교사가 만난 하나님 만큼만 아이들이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깊이 주님을 알수록 아이들이 더 성숙해 진다는 것, 이것은 진리이다. 일주일에 단 한번 만나는 교사를 통해서도 아이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였다.

또한 ‘세미한 교회 정교사가 되는 임명절차’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사는 직간접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면서 훈련을 시킨다. 정식교사로 임명되는 시간이 느린 것 같아도 한 교사가 제대로 세워지면 허술한 열 교사보다 낫다.”고 하였다. 이어서 영아부(부모훈련), 유치부(신학 기본개념 정립), 초등부(말씀통독/암송, QT훈련), 중/고등부(신앙과 삶의 일치)별로 목적과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차세대 통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였다.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수복 사모는 “다음세대 비중을 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유연성과 지시에 대한 순종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따르는데 아프다고 안 하면 성장할 수 없다. 교사들이 먼저 일어나서 우리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와 주일학교를 깨우는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강의 후에 만난 유아처 김현선 교사는 “차세대 교육국에 대한 일관된 커리큘럼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 연령에 따라 시기에 맞는 비전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견고한



교육체계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었고,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차세대 교육의 이상적인 모델이 되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되는 귀한 말씀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초등처 김근영 교사는 “앞으로 하나님께 하실 일들이 정말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함이 많았음을 깨닫고 어떤 것을 보면서 나가야 할지를 알게 해 준 좋은 시간이었다. 순종함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써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강의실을 나왔다.”고 하였다.

별도로 부탁한 이수복 사모의 ‘차세대 교육국 교사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로 취재를 마무리한다. “사랑하는 교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오는 이 길, 누구에게나 영혼을 맡기지 않으시는데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자체만으로도 값지죠. 이 값진 사역에 끝까지 승리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교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예배 전 예배자가 되자 예배 중 예배자가 되자 예배 후 예배자가 되자

(시편 27:4)



강남구청역 성탄트리점등 축하음악회

세상을 비추는 마을라운 소식

2019. 12. 13. 금요일 PM 6:00

강남구청역 만남의 광장



주일예배·수요예배·기도회				
주일	1부 예배	am 8:00	2부 예배	am 10:00
	3부 예배	pm 12:00	4부 예배	pm 2:00
	5부 예배	pm 4:00	주일 새벽예배	am 6:00
	영어 예배	pm 12:00		
수요	오전	am 10:45	저녁	pm 7:15
기도회	금요성령 집회	pm 8:30	새벽	am 5:30



성전건축을 위한 100만 기도시간
달성현황표

교구	385146:44
남전도회	183357:28
여전도회 회장단	33792:07
선교위원회	122809:00
청년위원회	25489:15
교회학교	8449:05
총	총 시간 763868:40
남은 시간	236131:20

• 선교위원회는 매달 1575시간씩 추가

2019년 12월 2일(제203호)

발행인 | 최병락 담임목사 편집인 | 최재우 위원장 교역자 | 김요한 목사·이길호 전도사 편집위원 | 김해순·김영숙·리림·박벼리·윤유진·조유희·최영수·최준호·최지영·한혜경 사진 | 정일 발행처 | 강남중앙침례교회 출판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6길 5 구독문의 | 02-546-3950 팩스 | 02-546-1302 이메일 | kjbcgrace1976@gmail.com 홈페이지 | www.kjbc.or.kr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디자인 | GNA Communications 월간 비매품 ■ 은혜자는 재생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됩니다.